

낙동강 전선 서남부지역 작전지도 연구

— 남지·영산지역 전투를 중심으로 —

張 龍 雲*

1. 서 론
2. 낙동강 방어선 형성
3. 남지·영산지역 전투
4. 작전지도 분석 및 평가
5. 결 론

1. 서 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전면공격으로 6월 27일 서울이 함락되었고 한국군이 혼란 속에 후퇴를 하게 되자 미국 정부는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북한군을 격퇴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미군의 개입으로 한국군의 재정비와 연합작전에 의한 지연전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전선은 여전히 북한군의 공격기세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

한 채 결국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¹⁾

낙동강선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구상은 금강-소맥산맥선에서의 지연작전이 한계점에 달한 7월 17일경부터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7월 26일 예비명령으로 하달되었다. 낙동강 방어선은 낙동강을 연하여 설정된 방어선으로서 당시 미 제8군 사령관 워커장군이 지정한 최후 방어선이라는 의미에서 '워커라인(Walker Line)'이라고도 불리어졌다.²⁾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쟁시 UN군이 낙동강 교두보를 확보하고 반격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낙동강 방어선 서남부전선 낙동강 돌출부에서 미 제24사단이 북한군 정예 제4사단을 맞이하여 어떻게 싸웠으며, 이 과정에서 미군 지휘관들은 북한군의 끈질긴 공격에 대응하여 어떻게 작전을 지도하고 기동과 화력 그리고 예비전력을 활용하여 적을 격퇴시키고 반격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는가를 분석하고 평가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전쟁에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6·25전쟁시 낙동강전선의 중요성은 지적되어 왔지만,³⁾ 작전지역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은 드물며 특히 낙동강지역 내 돌출부를 형성하면서 부산에 이르는 경로에 위치한 남지·영산지역 전투에

1) 온창일, 『한민족전쟁사』(서울: 집문당, 2001), pp. 592-650을 참조. 한국군과 유엔군은 대전에서 울진에 이르는 금강·소맥산맥 방어선을 지키고 전선을 안정시켜 전세를 발전시키려 했으나 이 방어선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7월의 전선은 매우 불안정했는데, 광정면을 부족한 병력으로 방어해야 하는 한국군과 미군은 연결된 전선을 유지할 수 없었고, 연결되지 않은 전선은 북한군의 우회와 침투전술에 취약하였고, 북한군은 항상 한국군과 미군의 후방과 퇴로의 확보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선을 축소하여 연결함으로써 적의 침투와 우회를 봉쇄하고 8군의 측방, 서남부지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2)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p. 651.

3) 낙동강지역전투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서울: 동아출판사, 1967);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쟁사』(서울: 교학사, 1984); 온창일, 『한민족전쟁사』(서울: 집문당, 2001); 안용현, 『한국전쟁비사』(서울: 경인문화사, 1992); 이종학, 『6·25 전쟁사』(경주: 서라벌군사연구소, 2001);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역, 『한국전쟁』(서울: 명성출판사, 1986).

* 경남대학교 군사학부 부교수

대한 작전지도와 전술적 분석은 드물다.⁴⁾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휘관의 작전적·전술적 측면에서 작전지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낙동강 방어선 형성

(1) 미군의 개입과 지연전의 실시

6월 29일,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한국전선을 시찰하고 미 지상군의 투입을 요청하였다. 6월 30일 03:00경 맥아더 장군의 전선시찰 보고서가 워싱턴에 도착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군은 전적으로 반격할 능력이 없으며, 추가적인 돌파의 중대한 위협을 안고 있다. ... 현재의 전선을 유지할 유일한 보장과 상실한 지역을 후에 회복할 능력은 지상군 전투부대를 한국의 전투지역에 투입하는데 달려 있다. ... 만일 허가한다면, 1개 연대전투단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한강 방어선)에 즉시 증원하고, 조기반격을 위하여 일본에서 2개 사단규모를 가능한대로 증파할 예정이다.”⁵⁾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1개 연대 전투단의 한국전선투입을 즉시 승인했으며, 추가로 주일 미군 2개 사단의 한국전선 파견을 명령했다. 이러한 지상군 투입이 결정된 4일만에 미군은 주일미군 제24사단의 전개를 완료했고, 며칠 후 UN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4개 사

단의 추가 증원을 요청하였다.

초기전투와 한강선 방어전투를 치른 후의 한국군은 전투력이 거의 소진되어 효과적인 지연전을 수행할 여력도 없었다. 다행히 미 지상군이 한국전에 투입되어 적의 주력이 지향된 서부전선을 미군이 맡고 한국군은 중동부전선을 방어하게 됨으로써⁶⁾ 지연전의 수행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한국전선에 최초 투입된 미 제24사단은 천안북방 평택-안성선을 최초의 저지진지로 선정하고 7월 5일 예하 제34연대를 이 선에 배치하였다.

북한군은 UN군에게 금강-소백산맥선의 방어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 주공방향을 천안-대전방향으로 하고 전력을 집중시켰다. 미 제24사단은 북한군 제4사단의 공격에 의하여 7월 8일 천안을 상실하고 조치원과 공주방향으로 후퇴하였으며, 7월 20일에는 대전까지 함락되고 말았다. 그러나 미 제24사단이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대전을 지켜냄으로써 미 제1기병사단이 영동에 저지진지를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2) 낙동강 방어선의 형성

7월초 미 지상군이 투입되기 시작한 평택-안성선의 지연전으로부터 금강-소백산맥선 전투의 결정판인 대전 전투까지의 시기에 미군은 서부지역, 한국군은 중동부지역을 담당하면서 지연전의 임무를 수행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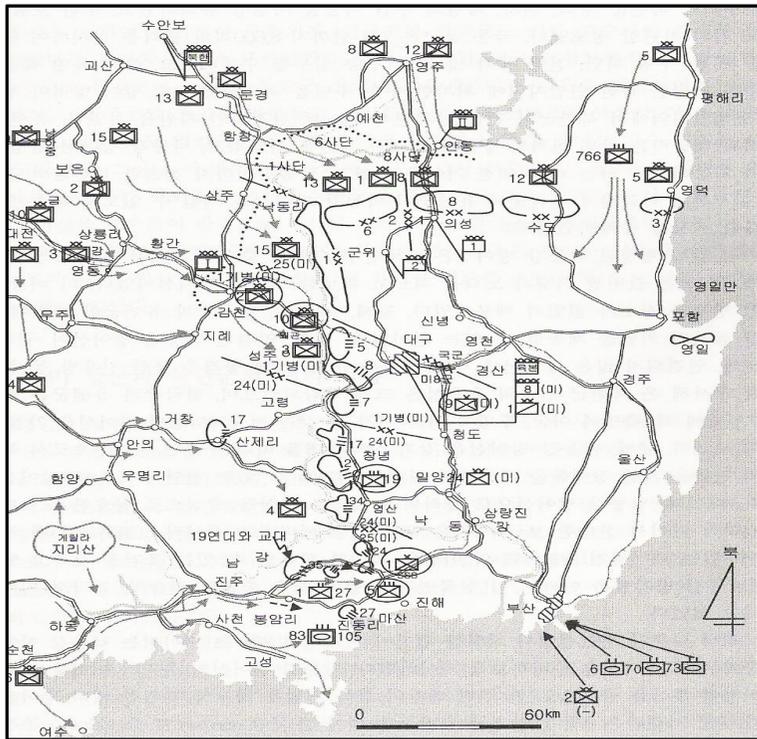
5) 미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고 그 선두부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부산에 도착한 7월 1일,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대전에 위치한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에서 처치(CHURCH) 준장과 공동작전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그때 양측은 국군의 재정비, 탄약 및 장비의 긴급보충 등에 관하여 논의 하였고, 또한 국군과 미군의 작전지역 분담, 장차 작전구상 등 한·미간 협동 및 연합작전과 관련된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보았다. 그때의 합의에 따라 평택-안성선에 전개한 미 지상군은 경부국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전선을 담당하고, 국군은 그 동쪽에서 동해안까지 전선을 담당하게 되었다. 김행복, 『6·25전쟁사(제2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p. 37-38.

4) Apple, R.E.,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U.S.G.P.O.,1986),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 American in Korea 1950~1953*(Random House,1987).

5) 남정옥, 『한미 군사 관계사, 1871~200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pp. 306-308.

낙동강 방어선은 남해안의 마산으로부터 북쪽으로 낙동강을 따라 낙동리까지 약 160km에 이르고 여기서부터 동해안까지 약 80km의 산악지대를 연결하는 선으로 이루어졌다. 지리적으로 방어선의 서쪽은 낙동강, 북쪽은 높은 산악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교적 방어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또한 부산을 중심으로 방어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중적, 횡적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어 내선작전 수행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전이 함락된 후에 미군은 경부국도를 따라 철수하면서 미 제1기병사단이

<요도 1> 낙동강 방어선의 구축(1950. 7. 31~8. 4)



출처 : 온창일, 『한민족 전쟁사』, p. 653 참조.

영동정면, 미 제25사단이 상주정면을 담당하고 한국군은 중동부 방면의 함창-안동-영덕선을 방어하였다.

UN군은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고 미 본토로부터 병력과 물자가 계속 증원되어 나날이 전투력이 증가되었고, 북한군은 신장된 병참선과 제공권 제해권의 상실로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그들의 공격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결국 UN군은 최후의 방어선을 낙동강선으로 유지하고 반격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낙동강에서 최후의 결전을 결심한 워커 장군은 국군과 UN군을 부대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작전책임지역을 할당하였다.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을 갖춘 미군은 낙동강변 일원의 개활지를 담당하게 하였고, 화력과 기동력은 부족하나 산악작전능력이 우수한 국군은 북동쪽 산악지역을 담당하게 하였다. 따라서 남서부지역은 미군 3개 사단이 마산으로부터 제25사단, 제24사단, 제1기병사단이 배치되었고, 북동지역은 국군 5개 사단이 왜관으로부터 동해안까지 배치되었다. 당시 미 제8군사령부와 육군본부는 대구에 위치하여 작전을 지도하였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미 제24사단이 담당할 영산·남지지역은 전략적 측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만일 이 지역이 돌파되면 인접지역인 밀양이 바로 위협을 받게 되고 밀양이 적에 의해 장악된다면 낙동강 방어선의 주요 축선인 부산과 대구가 절단되어 낙동강 교두보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워커장군은 이 지역의 돌파방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작전을 지도하였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의 방어작전 개념의 핵심은 '기동과 역습'이었다. 내선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적의 압력이 약한 거점에서 병력은 절약하며 기동예비대를 확보하고, 적의 공격에 의해 어느 지역이 돌파당하면 기동예비대를 신속히 투입하여 적을 격멸하고 전선을 회복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반격의 여건이 확보되면 낙동강선에서 공세 이전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7) 김행복, 『6·25전쟁사(제2권)』, p. 58.

3. 남지·영산지역 전투

(1) 작전지역과 미·북한군의 병력배치

낙동강 돌출부라고 불리워지는 이 지역은 거창-합천에서 영산을 경유 밀양-부산으로 이르는 접근로이며, 낙동강이 휘어져 흐르면서 도하가능한 도섭지가 형성되어 있어 군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만곡부 지역이다. 이곳에는 낙동강이 서쪽으로 돌출하여 흐르고 있고 만곡부 정점에 박진나루가 위치하고 있다. 당시 이곳의 서쪽에는 북한군 제4사단이 낙동강을 도하하여 영산-밀양으로 진출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동쪽 맞은편에서는 미 제4사단이 대치하고 있었다.

이곳 낙동강 돌출부 일대의 강폭은 300~1,000m이며, 수심은 2~4m로 도하가 어려우나 만곡부 일원에 몇 곳의 나루터가 있고 일부지역은 수심이 얕아 도섭이 가능하다. 만곡부 남쪽으로 얼마 내려가면 낙동강과 남강의 분기점이 형성되어 있고, 분기점 우측에 인접 남지읍이 위치하고 있다. 낙동강 돌출부 동쪽으로 10km 정도 가면 영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영산은 밀양 쪽으로 넘어가는 길목이다. 밀양은 대구와 부산의 중간지점으로 만일 이곳이 북한군의 수중에 넘어가면 부산교두보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중요지점이다.

이러한 낙동강지역에서 북한군 제4사단은 낙동강 돌출부로 접근해왔다. 북한군 제4사단은 38선 돌파시 의정부 축선에 투입되었던 북한군 최정예 부대로, 서울에 가장 먼저 입성했고 '서울사단'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단이었다. 서울 점령 후에도 항상 북한군의 최선봉에서 UN군을 격파하면서 경부국도를 따라 남진했고, 대전에서는 미 제24사단을 격파하고 금산-무주-진안을 거쳐 안의-거창 방향으로 낙동강선에 접근하였다.⁸⁾ 8월 4일에는

합천 주변에 집결하여 낙동강을 도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북한군 제4사단장 이권무는 낙동강 도하공격을 실시하기에 앞서 도하장비를 준비하고 탄약을 확보하여 우세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도하공격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전반적인 상황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⁹⁾ 상부로부터의 명령은 왜관 북쪽 제15사단의 도하와 제6사단의 마산공격에 호응하여 8월 5~6일 밤에는 도하를 결행토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을 배경으로 낙동강 일대의 방어전선에서 북한군 제4사단과 대치한 것은 미 제24사단의 병력이었다. 미 제 24사단장 처어치 장군은 지역의 도로망으로 보아 북한군의 주공방향이 창녕정면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창녕정면은 도섭이 가능한 지점이 많고 지형도 공격하기에 유리한 반면 방어하는 부대의 경우 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갑부대에 의한 반격이나 증원이 불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처어치 장군은 북한군이 창녕정면으로 주공을 지향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처어치 장군은 북한군이 미군의 방어태세가 완비되기 전에 신속히 공격을 하고 싶었지만, 그들 역시 도하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도하공격을 해오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¹⁰⁾

당시 미 제24사단의 병력은 크게 감소되어 있었고 보병연대는 아직 2개 대대편성 그대로였으며,¹¹⁾ 보병대대 병력도 500명 미만이었다. 또한 전차

8) 블라지미르 니콜라예비치 라주바예프 저, 전현수 외 번역,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198-203을 참조. 북한군 제4보병사단과 제105탱크사단은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간선도로를 따라 패주하는 적을 따라 대전을 점령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포병대대와 자주포 포대가 보강된 제4보병사단 예하 1개 연대는 남부방면으로 추격을 전개하여 공주를 점령하도록 되어 있었다. 7월 20일 북한군 제4보병사단은 제3사단, 제105탱크사단과 더불어 대전을 공격, 7월 21일 아침 6시 무렵 대전을 완전 점령하였다.

9)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 『한국전쟁』, pp. 150-151.

10) 김행복, 『6·25 전쟁사』 제2권, p. 61.

11)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America in Korea 1950~1953(New York: Times Book, 1987), p. 91.

도 없었고, 포병도 105mm 17문, 155mm 12문에 불과했다. 사단의 전력은 편제의 약 40%로 감소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미 제24사단은 방어정면과 가용부대, 제공권, 기동력, 도로망 등을 감안하여 기동방어 형태를 채택하였고, 방어편성은 북한군의 주공방향으로 판단되는 창녕정면에 미 제21연대, 현풍정면에 한국군 제17연대, 영산정면에 미 제34연대를 배치하고, 기동에 비로 미 제19연대와 사단수색중대를 창녕에 집결 보유하였다.¹²⁾

낙동강 돌출부에 인접한 영산정면을 맡은 미 제34연대는 방어정면이 직선거리로 13km, 하천선을 연하는 실거리로는 19km나 되었고 도하가능한 지점은 6개소 정도가 있었다. 연대는 제3대대를 강기슭에 배치하고, 제1대대를 기동예비로 강리에 두었다. 그러다 보니 전방대대의 방어정면이 너무 넓어서 1개 중대의 정면이 2~2.5km나 되었고, 중대간의 간격도 4~5km나 되었으며 대대는 이 넓은 부대간격을 차량정찰이나 순찰로 보완시켰다. 철조망과 지뢰는 자재부족으로 창녕정면 일부만 가능하였다.

그리고 사단은 진지점령에 앞서 강안으로부터 8km 이내에는 전 주민들을 소개시켰다. 사단은 “지시된 지역에서 퇴거하지 않는 주민은 적으로 간주하여 사살한다”는 내용을 포고했으며, 소개된 주민들은 창녕, 영산부근으로 집결시킨 뒤 후방으로 호송했다. 또한 낙동강 서안에서 동북으로 들어오려는 피난민은 못 들어오게 막았다. 왜냐하면 이들 피난민을 받아들이면 적 계릴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사단장은 장병들에게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철수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 낙동강 돌출부의 공방전

7월말 낙동강 방어선을 공격하게 된 북한군의 작전개념은 4개의 축선을 통하여 동시 공격하여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고 부산을 점령, 전쟁을 조

12) 김행복, 앞의 책.

기에 종결한다는 것이었다. 4개의 공격축선은 ① 경부도로를 따라 대구를 공격, ② 동해안 도로를 따라 포항-경주방향으로 공격, ③ 낙동강 돌출부를 공격하여 유엔군의 병참선 차단, ④ 남해안을 따라 마산-부산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었다.¹³⁾ 낙동강 돌출부 공격을 받은 북한군 제4사단은 영산을 경유 밀양을 점령함으로써 밀양이 북대구, 포항 등지의 유엔군과 국군의 병참선을 차단, 부산교두보를 접수하려고 하였다.

낙동강선에 도달한 북한군의 전투력은 개전초기에 비하여 50~60% 수준으로 감소되어 있었고, 신장된 병참선으로 인하여 병력과 장비, 물자의 보충이 어려웠다. 더구나 제공권과 제해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보급품 수송은 물론이거니와 주간의 모든 부대행동은 극심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¹⁴⁾ 그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초전의 공격기세를 유지한 채 전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8월 6일 00:00시를 기하여 북한군 제4사단은 낙동강 돌출부 지역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 제16연대는 주력을 영산정면의 오항(烏項) 나루터로 투입하였고 일부를 창녕정면의 부곡리 쪽으로 투입하였다.¹⁵⁾ 주공방향 오항나루터로 도하에 성공한 제16연대 제3대대는 도하 후 미군의 전방진지를 우회하여 남하하다가 미 제34연대 3대대본부와 4.2" 박격포 소대를 습격하였다.¹⁶⁾

13) 김행복, 위의 책.

14) 블라지미르 니콜라예비치 라주바예프 저,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p. 227. 당시 북한군은 무기와 탄약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고, 후방으로부터의 보급도 심각한 곤란을 겪었다. 운반되는 화물은 운송도중 공습에 의해 자주 파괴되었다. 전선에 투입된 예비사단들은 훈련뿐만 아니라 무장에 있어서도 충분한 상태가 아니었고, 포병은 50%의 손실을 입은 상태여서 보병과 전차의 진격을 제대로 지원하지도 못하였다. UN군의 지속적인 항공공격으로 인하여 예비부대의 지휘선도 자주 단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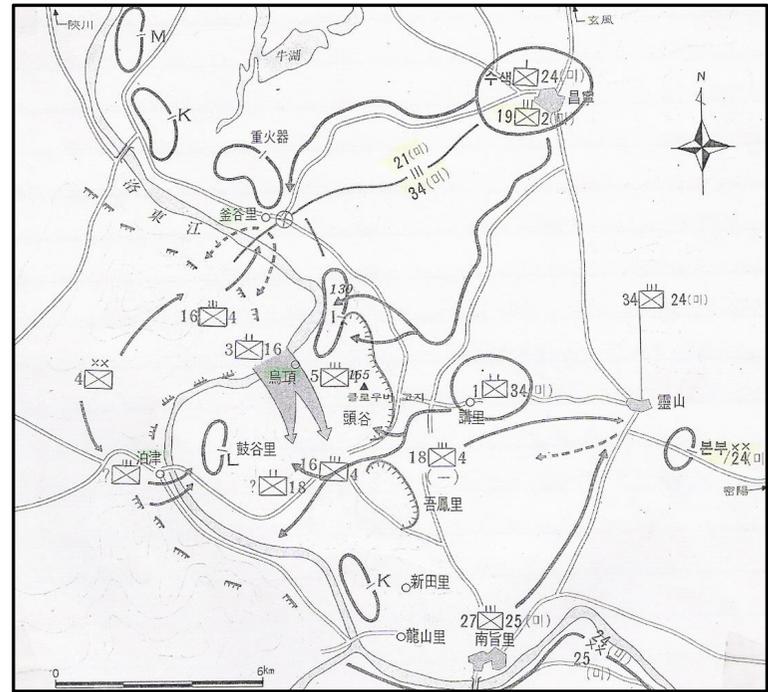
15) 북한군 제4사단 제16연대가 실시한 최초의 낙동강 돌출부 공격 당시의 주공 방향에 대해서 온창일, 『한민족 전쟁사』(서울: 집문당, 2001), p. 669에서는 오항나루터 쪽으로 기술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쟁사』(서울: 합동참모본부, 1984), p. 392에서는 부곡나루 쪽이라고 서로 상반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작전의 흐름을 볼 때, 오항나루 쪽으로 적의 주공이 지향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02:00시경 제3대대장 퍼레즈 중령으로부터 피습상황을 보고받은 미 제34연대장은 추가적인 전방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선 중대장들에게 확인했으나 강안진지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 마침 돌출부 침단을 점령하고 있던 중대장으로부터 “중대의 좌측방이 적의 공격을 받아 그 일부가 격퇴당했다”는 보고를 듣고, 연대장은 북한군이 박진나루로 도하한 것으로 판단하고 날이 밝으면 연대 역습을 실시하기로 하고 당시 강리에 집결하고 있는 제1대대장에게 역습명령을 하달했다.¹⁷⁾

미 제34연대 1대대장 아이레스 중령은 05:20분에 1개 중대로 역습을 실시하였으나 실패하고, 다시 대대병력을 집중 투입하여 겨우 ‘클로버’고지(165고지) 일부를 확보하였다.¹⁸⁾ 결국 연대 역습은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8월 7일 미 제24사단장은 북한군이 박진나루터에서 도하하여 영산 방향으로 진출을 기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단 예비인 미 제19연대를 투입하여 사단역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역습이 시작 된 후 북한군의 도하지점이 오항나루인 것을 알게 되었다.¹⁹⁾ 이렇게 됨으로써 부득이하게도 역습 도중에 목표가 변경됨으로써 사단 역습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²⁰⁾

<요도 2> 영산전투(1950. 8. 6~19)



출처: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앞의 책, p.392.

16) 부곡리 일대는 미 제34연대와 미 제21연대의 전투지경선이 통과하는 지역이었고, 부대간 격이 3km 이상이나 되었기 때문에 부곡나루터를 담당하고 있는 미 제21연대장 스티븐슨 대령은 기관총 수정을 이곳에 배치시켜 놓았던 것인데, 이것이 크게 효과를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항나루 쪽에는 이 정면을 담당한 미 제34연대 1중대가 병력을 표고 130m의 고지 정상에 배치시키고 오항나루에는 감시병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도하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 『한국전쟁』, pp. 151-152: 합동참모본부, 위의 책, p. 393.

17)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 『한국전쟁』, p. 153.

18) 클로버 고지는 표고 165m의 낮고 고지군으로 주위에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3개의 고지가 있는데, 전체가 클로버 모양을 하고 있어서 미군은 이 고지군을 클로버 고지라고 불렀다. 위의 책, p. 156.

19) 합동참모본부, 위의 책, p. 393.

20) 현풍 정면에서는 8월 7일 새벽 단대호 미상의 북한군 부대가 낙동강을 건너다가 이곳을 방어하던 국군 제17연대(미 제24사단에 배속)에 포착되어 모두 격멸되었다. 이 교전이

북한군이 낙동강 돌출부의 요지인 클로버 고지와 오봉리 능선을 점령하고, 영산 진출을 시도함으로써 낙동강 돌출부의 방어선은 일대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미 제8군사령관은 8군의 예비로 있던 미 제2사단 제9연대를 즉시 이곳에 투입하였다. 8일 도착한 미 제9연대장(John G. Hill 대령)은 9일 16:00시 사단 포병의 지원하에 제1대대를 클로버 고지, 제2대대를 오봉리 능선을 목표로 반격을 가하게 했다.

끝나고 얼마 뒤 국군 제17연대는 대구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 제24사단에서는 사단공병대대 A중대의 일부와 전차 1개 소대로 증강된 사단수색중대로서 하이저(Hgzer)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현풍 일대에 배치하였다. 위의 책.

그러나 야간행군으로 인한 피로와 걱정 및 지형의 미숙, 전투경험의 부족 등의 이유로 많은 손실을 입고 실패하고 말았다.²¹⁾ 당시 북한군은 박진 나루 부근에 수중가도(水中假道)를 가설하여 중장비를 도하시키고 있었다. 야간에 수면 아래 20~30cm 높이로 하상(河床)에 암석과 가마니에 자갈 따위를 채워서 수중도로를 만들고 중장비를 도하시키고 있었지만 미군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제9연대는 역습을 반복하였으나 손실만 증가되고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사단장은 5일간에 걸친 역습실패의 원인이 역습부대의 지휘체계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미 제9연대장에게 돌출부 내에 위치한 모든 부대의 지휘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11일 아침 제9연대장의 이름을 따서 힐(Hill) 특수임무부대가 편성되었으며,²²⁾ 8월 11일 아침 공격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지난밤에 북한군 제4사단은 대규모의 병력과 각종 야포 14문과 전차 5~6대를 비롯한 중화기와 주력무기를 도하시켜 돌출부 내에 전투력을 증강시키고 11일 아침에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²³⁾ '힐'특수임무

<표 1> 힐 특수임무부대의 구성

부 대 명	부대성격	비 고
미 제9연대	보병	
미 제19연대	보병	
미 제34연대	보병	
미 제21연대 1대대	보병	
미 제24사단 포병	포병	105mm 29문, 155mm 12문
미 제24사단 공병	공병	1개 중대

21) 온창일, 『한민족전쟁사』(서울: 집문당, 2001), pp. 669-670.
 22) 합동참모본부, 위의 책, p. 394.
 23) 위의 책, p. 394.

부대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계획된 대로 역습을 위해 공격개시선에 대기하고 있을 때, 북한군 제4사단이 '힐'부대를 먼저 공격하였다. 포병지원사격까지 걸들인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미 제21연대 1대대는 집결지에서 와해되는 등 '힐'특수임무부대는 대혼란에 빠졌다. '힐'부대의 공격계획이 무산되자 미 제24사단장은 방어로 전환하여 진지를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²⁴⁾ 북한군의 선제공격에 미군이 당한 것이다.

또한 북한군은 정면에서 미 제24사단을 압박하면서 제18연대를 영산방향으로 진출시켜 영산을 포격하였다. 영산에 북한군이 진출하자, 미 제24사단장은 미 제14공병대대를 영산으로 투입하고 8월 12일 힐(Hill) 대령으로 하여금 미 제19연대 1개 중대와 박격포 소대를 투입하여 영산에 이르는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던 북한군을 공격하도록 하였으나, 오히려 역습을 받아 실패하였다. 이때, 미 제8군사령관은 상황이 매우 위태롭게 된 것을 확인하고 당시 마산에 위치하고 있던 군 예비인 미 제27연대를 투입하기로 결심하였다.²⁵⁾

8월 13일 아침 미 제27연대가 투입된 역습이 성공하여 15:00시경에는 영산 동쪽 고지를 탈환하고, 미 제8군에서 증원된 미 제23연대 1대대 및 사단 공병대대와 협동하여 전과를 확대함으로써 영산 일대에 조성되었던 위기는 극복되고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날 미 제27연대는 다시 군 예비로 복귀하여 경산으로 이동하였다.²⁶⁾

미 제24사단장은 영산주변의 북한군을 완전히 소탕하자 다음날 14일 아침, 돌출부지역의 북한군 병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힐'부대에게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일기가 좋지 않아 최초 계획된 전투기 100여 대의 항공지원이 취소되었고 가용한 전투병력도 1,600명 선으로 격감되어 공격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15일에도 공격이 계속되어 클로버 고지와 오봉리

24) 온창일, 위의 책, p. 670.
 25) 위의 책.
 26) 합동참모본부, 위의 책, p. 395.

능선에서 치열한 백병전이 되풀이 되었지만, '힐'부대는 근접전에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음에 따라 전투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²⁷⁾

미 제24사단 처어치 장군은 전력이 회복될 때까지 방어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위커 장군의 생각은 달랐다. 위커 장군은 낙동강 돌출부 지역을 장악하여 대구 후방의 위협을 제거하고 대구와 부산간의 병참선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²⁸⁾

이 무렵 돌출부 내의 북한군은 보급의 부진과 피해의 증가로 사기가 저하되어 투항하는 병사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마산에서 '킨'특수임무부대 작전을 끝마치고 밀양으로 이동중인 미 해병 제1여단을 8월 15일부로 미 제24사단에 배속하고 낙동강 돌출부 내에 진출한 북한군을 완전히 몰아내도록 지시하였다. 17일 미 해병 제5연대, 미 제9연대, 미 제34연대, 미 제19연대의 4개 연대가 공격을 개시하여 북한군 제4사단의 저항을 물리치고 클로버 고지와 오봉리 능선의 일부를 탈환하였다.²⁹⁾

돌출부 내에서 북한군의 가장 견고한 방어진지를 탈취한 미군은 8월 17일 밤에 산발적으로 도발해 오는 북한군을 격퇴한 후 다음날 전과확대를 실시, 19일 아침에 돌출부 내의 잔적을 완전히 소탕하였다. 이로써 13일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는 끝을 맺었다. 북한군 제4사단은 이 전투에서 병력이 3,500명 이하로 격감하였고, 야포, 전차를 비롯한 중화기의 대부분을 잃고 말았다. 북한군 부대 중에 가장 정예부대로 명성을 떨치던 북한군 제4사단은 이 일전으로 재기불능의 타격을 받아 다시는 낙동강선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였다.³⁰⁾

27) 위의 책.

28) 온창일, 위의 책, p. 671.

29) 그 뒤에 포로 심문에 의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군 제4사단은 오봉리 능선에 제18연대를 클로버 고지에 제16연대를 배치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확보할 결의를 굳히고 있었다고 한다. 합동참모본부, 위의 책, p. 396.

30) 위의 책.

4. 작전지도 분석 및 평가

(1) 작전단계별 작전지도 평가

1) 작전초기단계

작전결과를 분석해보면, 미 제24사단장은 북한군의 주공방향을 창녕정면으로 잘못 판단하고 사단 예비대인 미 제19연대를 창녕에 배치했으며, 미 제34연대장은 낙동강 돌출부 방어를 위한 병력배치를 19km의 광정면에 1개 대대만을 배치하고 나머지 1개 대대를 그 후방 강리(지금의 장마)에 집결보유한 상태였다. 그리고 작전지역내 주민들을 사단작전지역 후방, 밀양, 삼랑진 등지로 강제 소개시킨 후 방어작전을 실시한 것이었다.

작전지도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첫째 미 제24사단장은 북한군 주공이 창녕정면으로 지향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사단 예비대(미 제19연대)를 창녕에 위치시켰는데, 실제로 북한군은 영산방면(낙동강 돌출부)을 도하하여 영산-밀양 방향으로 공격을 지향하였다. 이것은 미 제24사단의 정보판단이 정확하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사단사령부를 영산 부근에 위치시킨 것은 영산-밀양 축선을 중시했다는 증거다. 이러한 이유로 미 제24사단의 북한군 주공판단은 작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³¹⁾

둘째, 미 제34연대의 방어정면이 직선거리로는 13km였지만, 낙동강선을 연한 실거리는 19km나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연대는 1개 대대만을 강기슭에 배치함으로써 북한군의 도하를 감시하는데 실패했다. 비록 넓은 정면

31) 작전은 전투에서 개개의 위치와 역할을 정하여 주며, 작전의 목적은 통상 전투성과의 목적으로 달성된다. 전투실패가 일거에 작전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작전지도상의 실패를 전투의 성공으로 보상하기는 극히 곤란하다. 육군본부, 교육참고 100-5-2 『아외령(일본 자위대 작전요무령)』, 1978, p. 3-1.

에서 기동방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 전방병력을 대대(+) 규모로라도 다소 증강하여 도섭지점에 대한 감시체제를 보강했다 라면 초전의 기습도하를 식별할 수는 있었을 것이며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개전 후 지금까지의 북한군의 공격양상을 고려할 때, 작전지역 내 주민을 작전지역 후방으로 소개시킨 것은 적절하고도 필수적인 지휘 조치였다.³²⁾

2) 낙동강 돌출부 공방전 수행단계

작전결과를 분석해보면, 미 제34연대 방어책임지역 내 전방지역을 담당했던 미 제3대대 전방중대(제1중대)는 도섭가능지역인 오항나루에 경계병을 미배치하고 전병력을 130고지 정상에 배치함으로써 북한군이 기습도하를 경고하는데 실패했으며, 또한 도하한 북한군 부대에 대해 미 제34연대장의 연대 역습 실패 후, 미 제24사단장은 사단 역습을 실시할 때, 최초에는 북한군 도하지점을 박진나루로 판단하고 사단 예비인 미 제19연대를 투입하다가 북한군의 도하지점이 박진나루가 아니라 오항나루인 것을 알고 공격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역습의 충격력을 상실해 역습에 실패한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군 제4사단이 낙동강 돌출부의 요지인 클로버 고지와 오봉리 능선을 점령하고 영산방면으로 진출시 미 제8군사령관은 8군 예비인 미 제2사단 9연대를 즉시 투입했으며, 미 제9연대의 반복된 역습이 성과가 없자, 미 제24사단장은 지휘통일을 위해서 미 제9연대장 '힐'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작전을 실시한 것이다.

32) 지휘관 지휘관이 부여된 계급과 직책으로써 그의 부대 및 부하에 대하여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에는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부대를 편성, 운용, 감독하고 협조시키며 통제하는 책임이 따른다. 육군본부, 야전교범 61-100 『사단』, 1978. p. 2-1.

아울러 '힐'특수임무부대의 공격이 북한군 제4사단의 선제공격으로 공격이 무산되고 영산이 위급하게 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마산에 있던 군 예비(미 제27연대)를 투입, 역습에 성공했으며, 역습의 마지막 단계에 미 해병 제1여단을 투입, 전과확대를 실시함으로써 북한군 제4사단을 섬멸했던 것이다.

작전지도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첫째 낙동강 돌출부 작전 방어책임을 맡았던 미 제24사단예하 미 제34연대장, 그리고 그 예하 대대 및 중대 지휘관들은 북한군의 주공지역 판단이나 병력배치, 역습 등 전투 지휘능력 면에서 미숙했다.³³⁾ 그 결과 그들의 상급부대 지휘관들이 모든 예비대를 투입하고서야 겨우 영산지역의 위기를 수습할 수 있었다.

둘째, 미 제24사단장이 돌출부대 작전부대의 지휘통일을 위해서 '힐'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작전을 실시한 것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였다.

셋째, 낙동강 돌출부의 위기에 직면하여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그의 가용한 모든 군 예비를 즉시 그리고 과감하게 투입함으로써 결국 역습에 성공하였고, 마지막 단계에 그가 가장 아끼던 미 해병 제1여단을 투입하여 전과확대를 실시함으로써 지대 내 북한군 제4사단을 격멸하고 낙동강 서측방을 안정시킨 것은 공세적 기동방어의 좋은 예다.

(2) 작전세대별 작전지도에 대한 평가

우선 미8군 및 예하부대 지휘관의 작전지도에 대한 평가를 보도록 하자. 군대에서 지휘관은 지휘의 중심이며 원동력이다. 자고로 군의 승패는 그 군대보다 오히려 지휘관에게 달린 바가 크다. 전승은 지휘관이 승리를 확신하는 데서 비롯되고 패전은 지휘관이 패배를 자인하는데서 발생한다. 그

33) 지휘관은 신속하게 결심을 하여야 하며 그 결심을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인원, 장비의 기동성뿐만 아니라 융통성 있는 사고는 현대전의 기본요소이다. 위의 책.

러므로 전쟁의 최종결정은 실로 지휘관에 달려 있다. 고을을 정복한 것은 로마인이 아니라 카이사르(Gaius Julius Caesar)이며, 무적을 자랑한 로마를 전율케 한 것은 카르타고 군이 아니라 한니발(Hannibal)이었다. 또한 인도까지 정복한 것은 마케도니아군이 아니라 알렉산드로 대왕이었다.³⁴⁾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휘관의 작전지도를 살펴보는 것은 전사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 요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한국전쟁시 미8군의 낙동강전선 서남부 돌출부 지역 전투를 평가하고 재조명해 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8군 사령관 워커 장군과 미 제24사단장 그리고 예하 지휘관들의 작전지도를 객관성 있게 평가하는 것이다.

첫째, 미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의 작전지도에 대한 평가다. 미8군 사령관의 중임을 맡고 한국전선의 지상군 최고사령관이 된 워커 장군은 지연전의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고 낙동강선을 반격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이었다.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때마다 그는 대부대 지휘관으로서 항상 반격의 여건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낙동강 돌출부의 북한군 제4사단의 집요한 공격에 직면하여서도 워커 장군은 미 제24사단의 사단역습이 실패하고 영산방면의 상황이 위급해지자 지체없이 마산에 있던 군 예비인 미 제27연대를 투입하였고, 이어서 마산에서 '킨'특수임무부대 작전을 끝마치고 밀양으로 이동 중이던 미 해병 제1여단마저 투입하여 전과확대를 실시함으로써 낙동강 돌출부에서 북한군을 완전히 축출하였다.³⁵⁾ 워커 장군의 공세적 부대 운용은 결국 낙동강 서측 방을 안정시키고 부산교두보의 확보를 가능케 했던 것이다.

34) 오오바시 다케오 저, 강진구 역, 『통수강령』(서울: 병학사, 1980), p. 5.

35) 역습은 방어전투의 기본으로써 부분적인 적의 돌파는 최초 국부적인 역습으로 처리하며, 국부적인 역습이 실패할 경우 전방부대는 방어거점을 고수하면서 적을 계속 전개시켜 상급부대로 하여금 강력한 화력과 전차부대를 동반한 역습으로 격퇴할 수 있도록 선정된 지역으로 적을 유인하는데 전 역량을 집중한다. 육군본부, 야전교범 51-100 『군단 및 야전군』, 1988, p. 53.

둘째, 미 제24사단장 처어치 장군의 작전지도에 대한 평가다. 미 제24사단장이 남지·영산지역의 낙동강 돌출부 작전을 수행하면서 사전에 작전지대내 민간인들을 밀양, 삼랑진 등 사단 작전지역 밖으로 소개시킨 것은 민간인 통제면에서 적절한 조치였다.³⁶⁾ 만일 그러한 조치가 없이 작전이 시행되었더라면 전투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가 컸을 것이며, 북한군에게 이롭게 활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낙동강 돌출부 작전에 있어서도 공세적 부대운용을 통하여 영산방면으로 공격해 들어온 북한군 정예 4사단을 저지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웠다. 수차에 걸친 군 역습이 성과가 미진하자 방어지대 내 모든 작전제대의 지휘통일을 위하여 '힐'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힐(Hill) 대령이 통합 지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미 제24사단 예하 연대 및 대대급 이하 지휘관의 작전지도에 대한 평가다. 낙동강 돌출부 작전시 전방지역 방어를 담당했던 미 제34연대는 제3대대를 강안지역에, 제1대대를 예비로 그 후방(강리)에 위치시켰으며, 연대본부는 영산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배치는 기동방어를 통해서 지대내 유입되는 북한군을 격멸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비록 가용부대가 제한되었지만 넓은 방어정면을 1개 대대에게 맡김으로써 전방중대가 도섭가능지점에서의 북한군의 도하를 탐지도 하지 못할 정도로 과중한 방어정면을 맡긴 것은 문제가 되었다. 그러한 경우에는 대대(+)규모로 증강시켜 북한군의 예상되는 도하지점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조했어야 했던 것이다.

결국 낙동강 돌출부 작전에서 오항나루로 기습 도하하는 북한군을 탐지하지 못함으로써 초기방어작전에 혼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연대 역습은 물론이고, 사단 역습마저 역습방향을 잘못 정함으로써 결국 실패를 겪

36) 2006년 6월 수차례에 걸친 작전지역 현지 방문시 낙동강 돌출부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내외의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주민들은 8월초에 밀양, 삼랑진으로 피난 가서 추석이 지나고 돌아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이곳 주변 야산에는 당시의 탄약, 철모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어야 했던 것이다. 이것은 연대장의 책임이기도 하며, 동시에 전방 대대장, 전방 중대장의 책임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실책이 결국 낙동강 돌출부의 초기작전성과를 상실케 했던 것이며 낙동강 돌출부의 위기까지 조성했던 것이다. 이렇게 초래되고 조성된 위기는 결국 군사령관이 마지막 예비대까지 투입하여 수습하도록 만들었다.

5. 결 론

개전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미군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중부지역의 요지 대전을 석권한 후, 쉬지 않고 공세를 계속하여 부산을 점령, 8월 15일까지는 전쟁을 종결하려 하였다.³⁷⁾ 그들 중 서남부 방향으로 접근하여 낙동강 전선 서측방 돌출부 지역을 위협했던 북한군 정예 제4사단은 UN군의 최후 방어선에 일대 위기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워커 장군을 비롯한 미 제24사단 지휘관 및 장병들은 불굴의 투지와 영웅적인 전투로 맞서 싸웠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5년간의 평화시대를 만끽하다가 특별한 준비도 없이 동원되어 낯설은 한국전선에 참전한 미군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

37) 대전을 점령한 후 평양측은 “미군과 한국군을 8월 15일 안으로 한반도에서 축출하고야 말 것이다”라고 방송하였다. 북한군은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7월 하순 대규모 공세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총 12개 사단의 대병력을 전선에 투입하기에 이르렀다. 중부전선에서 김천, 대구 방면에 그 주공을 지향하고, 서부전선에서는 진주-마산 통로와 고령, 현풍, 창녕 등지에, 중동부에는 상주, 함창, 안동, 영천 방면으로, 동해안에는 영덕과 포항에 이르는 5개 통로를 통하여 한·미연합군 전선에 대한 압력을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이 공세에 투입한 적의 전선병력은 8개 사단을 비롯하여 후방에 새로 편성된 제7, 제8사단과, 예비인 제10, 제13사단의 4개 사단이 공세증원을 위하여 남으로 이동 중에 있었다. 당시 김일성은 충북 수안보에 위치한 전선사령부에 내려와 직접 독전에 나섰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북한 괴뢰군의 남침』(서울 : 동아출판사, 1968) p. 761.

했던 독특한 지형과 독특한 적을 맞이하여 초기에는 예상 못한 여러 어려움과 쓰라린 전투결과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 후 미군은 그들이 자부하는 세계최강의 군대로서의 면모를 다시 찾고 용감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싸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우리가 분석하고 찾아내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결과의 종합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낙동강전선의 방어작전간 수행되었던 측방 돌출부지역 전투과정을 보다 세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통하여 당시의 전투에 참가했던 각급제대 지휘관 및 참모, 장병들의 작전 및 전투수행상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실용적인 교훈을 도출해 보려는 것이다.

북한군 최정예 사단인 제4사단의 집요한 공세에 직면했던 미 제24사단의 낙동강 돌출부 방어작전을 살펴보면, 북한군이 끈질긴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군은 그들을 격퇴하고 낙동강전선의 서측방을 안정시켜, 부산교두보의 중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만일 남지-영산지역에서의 북한군 돌파를 허용했다라면 왜관과 다부동, 포항 등지에서의 미군과 한국군의 숨 막히던 혈전도 아무런 의미를 갖기 못하고 낙동강 방어선은 유지되기 힘들었을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원고투고일 : 2008. 3. 21, 심사수정일 : 2008. 6. 3, 게재확정일 : 2008. 6. 16)

주제어 : 낙동강 방어선, 워커라인, 남지·영산지역전투, 힐트수임무부대, 킷수임무부대, 오봉리능선, 오항나루, 낙동강돌출부, 워커 장군, 처어치 장군

<ABSTRACT>

A Study on the Operations Leadership at
the *Nakdong* River Front : Focus on the Battle of
the *Namji-Yeongsan* Area

Jang, Ryong-un

During the Korean War, the situation had worsen after July 20, 1950. After the fall of *Daejeon*, the core of the *Seoul-Busan* axis, General Walker decided to concentrate all forces at the *Nakdong* River and prepare the decisive defense. The *Nakdong* River literally became the final line of defense with no more ground to fall back on, and the fate of Korea was to be determined here.

The UN Forces consisted of five ROK divisions and three EUSA divisions had to cover a total frontline of usual length of 240km. Thus division had to cover 30km, twice the usual length of 15km for a division. Also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NKPA) faced difficulties from its stretching supply route and especially from the increasing loses of equipment and men as a result of fierce battles.

Meanwhile the ROK and the UN Forces gained the time needed for reinforcements to arrive for an all-out counteroffensive. And General Walker's 'stand or die' spirit spread among the allies and boosted the morale. The *Nakdong* perimeter that included *Namji-youngsan* Area was a fierce boiling pot. It was a critical moment when the Republic of Korea's fate stood at crossroads.

Against the NKPA's fierce attack to end the war by the fall of *Busan*, the west part of *Nakdong* River, *Namji-youngsan* was critical Area to sustain the *Nakdong* Perimeter. If this area were to be invaded by the NKPA, *Milyang* would be threaten directly. *Miryang* is critical point to the US supply route from *Busan* to *Daegu*. For this reason General Walker had to concentrate his intension more than any area.

Especially the US 24th Division Commander and his soldiers fought fiercely against the NKPA 4th Division to defend the *Namji-yeongsan* Area. The NKPA 4th Division was famous and strong division than any other NK Divisions, but the US 24th Division Commander and his soldiers fought well and kept the area even if some dangerous moment were occurred.

By their heroic fighting, *Nakdong* River west front was sustained and *Nakdong* Perimeter could be kept until to the time of the UN Forces' Counteroffensive.

It was not Rome but Caesar who conquered Goul. It was not Caltago army but Hannibal who made the Romans horrified And it wasn't Macedonian army but Alexandros who conquered India. From this respects. there's no doubt that looking into the commander's leadership or operation guidance is very important when we study a war history. Therefore evaluating the operation guidance of the US 8th Army Commander General Walker and the US 24th Division Commander is essential for studying the *Nakdong* River frontline combat.

General Walker had decided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defense operation near the *Nakdong* River, and he had always tried to take initiatives of operation. It was a wise and appropriate thinking. When the US 24th Division's counterattack failed and the situation at *Yeongsan* area become urgent, he put the US 1st Marine Brigade into the combat so that the NKPA was extracted completely. His aggressive operation bad brought the stabilization of *Nakdong* River frontline. and made possible to obtain the *Busan* Perimeter.

The US 24th Division Commander General Church moved the civilians within the operation area out of the area. It was appropriate in terms of the civilian control. If the operations carried out without such action, many civilians would have been injured or killed, and it would have given many advantages to the NKPA.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overall operational result in studying a war history. However, this study is objecting to analysis and evaluate the process of the combat in detail which was executed along the *Nakdong* River Defense Operations in the west part of the area, so that we can learn the practice lesson by analyzing each case of the success and the failure of the combat of every level of commanders.

Key Words: The Korean War, the ROK Armed Forces and the UN Forces, the ROK Divisions, EUSA Divisions, General Walker, UN -Forces' Counteroffensive, *Nakdong* River Defense Operations, the US 24th Division, General Church